

기록학과 윤리적 관점

Archival Science and Ethics

이영남(Lee, Youngnam)*

1. 기록학과 인간학
2. 아키비스트 K의 이야기
 - 1) 법률적 인간의 죽음
 - 2) 새로운 종류의 아키비스트의 탄생
3. 체험적 진술과 텍스트
 - 1) 기록기술지 작성원리
 - 2) 기록기술지 서술전략
 - 3) 해석과 의미
4. 윤리적 관점과 전문성 발달
 - 1) 윤리규약과 진술의무
 - 2) 윤리적 관점
 - 3) 전문성 발달
5. 에필로그

* 한신대 한국사학과 초빙교수(durtkrk@gmail.com).

■ 투고일 : 2016년 9월 30일 ■ 초심사일 : 2016년 10월 4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10월 14일

〈초록〉

기록물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보다도 기록을 대하는 인간은 누구이고, 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기록학에 필요한 것은 윤리적 관점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 글은 윤리적 관점을 이야기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아키비스트 윤리규약이 이미 있지만 윤리규약 이전에 윤리학을 탐구해야 한다는 점, 나아가 윤리학이 속한 인간학의 지평에서 기록학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아키비스트에게는 기록수행에 대한 진술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수행할 때 윤리의식이 배양된다는 점, 아키비스트라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성 발달도 사실은 윤리적 관점을 견지할 때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셋째, 이 글에서는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기록현장을 관리하는 존재로 보았는데, 이런 존재에게 기록물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만 기록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술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인식론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술했다.

주제어 : 경제윤리학, 경제인류학, 기록정의, 사회정의, 아키비스트 윤리 강령, 이타성, 인간학, 질적연구방법론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s and archives by asking the question “who is the archivist?”. Aside from this, the researcher also emphasized the following theses. First, archival science should search for ethics as a discourse and not just the Code of Ethics. Second, an archivist should state his/her view in their archives field. Third, archival science should search for both personal and practical knowledge. Aside from these, this article argues also that an epistemological approach is necessary for ethics.

Keywords : Economic ethics, economic anthropology, archival justice,
social justice, code of ethics, altruism, ethnography,
qualitative inquiry,

1. 기록학과 인간학

2015년에 나온 <금요일엔 돌아오렴>은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이 기록했다. 작가기록단의 글쓴이들은 기록자로서 자기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소통을 꿈꾼다. 삶의 목소리와 몸이 만들어낸 소리에 관심이 많다. 사람을 향하는 사람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드러나지 않는 삶을 주목하고 국가와 사회적 폭력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제훈이 엄마를 만나면서 그 시간을 기록했다. 동그랗게 모여 앉은 세상을 위해 삶의 언어로 기록하며 전하고 싶다>. 이것은 이력서의 자기소개나 경력관리가 아니다. 기록자로서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기록의 사회적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다. 고백이 이끌어 한 권의 책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기록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 사건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직시하며 바라봐야 할 삶을 찾는 것, 자기 삶을 성찰하기, 그리고 애뜻한 사랑이 ‘영혼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탄생했다. 기록의 기원과 목적, 기록하는 시간과 목표, 그리고 기록의 중심이 인간이었다. ‘돌아오렴’이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의 관점이 인간이라는 점일 것이다.

고백은 신앙고백이나 사랑고백, 또는 심리치유를 위한 맥락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예를 들어, 고백은 증언을 위한 진술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역사적, 사법적 차원이다. 고백은 기록학 차원에

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백의 결과물로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언어적 행위도 기록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돌아오림의 기록자들은 고백했고, 고백이라는 언어적 행위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힘, 우리 사회에 요청되는 진실한 목소리, 정의로운 기억을 만들었다. 요컨대, 고백-언어적 행위-기록이라는 계열은 인류사적, 사회적, 사법적인 차원의 정의(Justice)에 필요하다. 나아가 윤리적 차원에서도 요청된다. 윤리학의 근본적 질문은 다음의 둘이다.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right),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good)¹⁾ 돌아오림의 기록자들은 아키비스트 윤리규약 이전에 근본적인 윤리적 물음을 던지며 기록했다. 윤리를 규약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위험성도 있다.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윤리적 가치와 방향성을 근본 물음이 아닌 조항에서 찾게 한다는 점이다(후술). 이는 돌아오림의 기록의식이 윤리학의 근본 물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고백을 기록학의 한 과제로 다룬다.

인간의 행위(행동, 태도, 취향 등), 관계(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생태적 관계)와 상호작용, 경험, 그리고 언어(인간의 행위에 속하지만 별도로 배치했다) 등을 다루는 영역은 인간학(sciences humaines)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간학에는 문사철,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지리학, 교육학, 인류학, 법학 등 일반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속하는 연관 학문이 속한다. 나아가 1970년대부터 등장한 사회생물학이나 진화심리학은 식물이나 동물에 관한 담론 역시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물론 이런 접근이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모든 과목을, 모든 상황에서 인간학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통합논의에 대해서는 일관된 비판적 흐름이 있다. 한편으로 보면,

1) 윤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Pojman and Fieser(1999)의 Ethics: Discovering Right and Wrong, Singer(1995)의 How are we to live?: ethics in an age of self-interest, Singer(2011)의 Expanding circle: ethics, evolution, and moral progress 등을 참조했다.

통합은 불가능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떠나서 각 분과학문은 이미 역사적으로 자기 고유의 방법론과 연구대상을 보유하고 있다. 오히려 분과 학문별로 더 전문화되면서 심화되는 추세이다. 그렇다고 인간학적 관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문화는 더 깊은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간학적 관점과 선별적 접목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어떤 분과학문이든 인간을 이해하고 정리하려는 시도를 할 때 인간학적 지평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²⁾

인간학적 접근에 대한 반론도 있다. 예를 들어, ‘영혼의 상태나 인간의 감정은 비밀스러운 인간의 존재양상일 뿐이며 이들은 오직 한 사람, 즉 이들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인지할 수 있다’는 반대논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학은 이런 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체험한 사람만이 인지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며 사회적 의미가 그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학은 이런 점을 중시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강조한다. 인간학이 ‘인문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까지 포괄하는 이유는 이런 데에 있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역할과 함의는 무엇일까? “인간적 사실들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그 사실들 자체 속에 새로운 지배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간섭요인이 중요하다. 본질적인 것은 인간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간학은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을 스스로 파악해 보려는 데서 출발한다.”(Vergez and Huisman 1980, 이정우 역 1988, 346-349) 이런 지적은 인간학의 골간에 인문학이 있다는 점, 그리고 문제의식과 해석, 의미화에서 인문학이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잘 말해준다 하겠다.

2) 인간학은 프랑스의 학문적 전통이긴 하지만 북미에서도 이름을 달리하면서 논의가 되는 담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Foucault(1966; 1972), Vergez and Huisman(1980), 최재천, 주일우(2007), 이정우(2011), Singer(2011) 등을 참조하였다.

돌아오림의 기록자들도 고뇌와 고통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이것을 철학적 맥락에서 말해본다면,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가 16세기 당시 썼던 팅세(penser)라는 말은 좁은 의미의 생각(think)이 아니었다. 사고만이 아니라 느낌, 정서, 의지 등 인간의 정신적 행위를 망라하는 의미였다(Clément 1994). 한편, 스피노자는 좁은 의미의 정신적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신체적 활동을 망라해서 사유했으며 현대철학은 인간의 신체적 활동과 연결되는 외부세계(사회)까지 포괄해서 사유한다. 요컨대, 사유는 좁은 의미의 생각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행위, 신체적 활동은 물론이고 외부세계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때, 사유한다. 사유는 철학의 제반 영역을 관통하는 핵심개념이자 정신이다. 철학은 명료한 사유와 개념적 언어화를 목표로 한다. 철학에는 논리학도 있지만, 존재론이나 인식론, 실천론(윤리학)도 있다. 돌아오림의 기록자들이 출발한 지점은 고뇌와 고통이 아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었던 것이 사유였다면, 그리고 그 사유가 인간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돌아오림의 기록자들의 출발점은 인간-사유-고통의 계열로 재인식 될 수 있다.

이 글은 인간학적 관점에서 기록화의 한 과제로 인간적 사실을 탐구한다. 인간적 사실을 다루되, 인간행위의 결과물을 다루는 기록물관리로 환원하지는 않는다. 환원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인간은 왜 기록하는가, 인간의 삶에서 기록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를 보편적 지평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런 접근은 정당한가? 이런 물음이 기록물관리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런 물음이 지향하는 곳으로 윤리적 가치(올바른 삶과 옳은 삶)를 상정하다. 윤리적 가치를 말할 수 있다면, 기록에는 정보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공존한다는 점도 부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록화의 주체로 아키비스트를 상정한다. 다만, 아키비

스트를 법률적/분과적 테두리의 기록전문가로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확장해서 넓게 포진시킬 것이다. 돌아오렴의 저자들처럼 공공기록법 바깥에서 ‘기록자의식’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기록자(작가, 다큐멘터리 감독, 사진가, 기록산업 종사자, 아카이브 관련 협동조합 종사자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직업수행의 연관성으로 기록자 의식을 자기 분야에 접목하고 있는 타 분야 종사자,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기록자 등이다. 아키비스트를 새롭게 분류해본 이유는 인간적 사실을 다루려면 인간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인간학 중에서도 경제학, 인류학, 윤리학에 초점을 둘 것이다. 경제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학의 담론적 위치가 근원적이기 때문이다. 근대의 진리관 밑바탕에는 경제학이 있다. 경제학은 분과학문의 하나이면서도 이런 분과학문들의 거리에서 신전의 역할을 수행한다.³⁾ 둘째, 주류 경제학의 사회적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의 영향으로 서구사회가 다른 세계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은 의심을 받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오히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시장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각 학문영역에도 시장기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김영진 2005). 예를 들어, 대학의 현재와 같은 연구논문 양산시스템은 ‘시장기제’로 설명하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기록학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기록학도 신전의 냄새를 맡아야 하고, 내부에서 작동하는 기제에 대한 탐구도 해야 한다. 기록학은 법률기관 기록관리(공공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한 행정기관의 기록관리)에서 출발했지만 이미 이 영역을 넘어섰다. 사회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아카이브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비단 서구사회만 기록열

3) 밑바탕을 형성하는 담론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문헌학도 있다(Supiot 2005, 서문; Foucault 1966). 다만, 이 글에서는 서술의 한계상 경제학에 한정한다.

병(archives fever)만 앓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흐름은 기록대중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특히 최근의 일상아카이브, 공동체아카이브(또는 지역아카이브), 밀양이나 416참사 아카이브에 관심을 둘 것이다. 이런 논의를 따라 가다보면 인간의 삶에서도 아카이브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신자유주의)은 ‘이윤이라는 영혼을 가진 시장 경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주류 경제학에 대해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마르크스, 폴라니, 케인즈 등으로 이어지면서 19세기 이래 오래되고 장기지속적인 과제였다. 기록학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 학문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도 하지만 기록학이 과연 경제학을 다루는 것이 필요한가, 다룬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이어야 하느냐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록학이야말로 새로운 경제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인간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기록학 역시 학문적으로나 기록현장의 상황에서나 경제학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대상이나 기록화 대상과 무관하게 기록학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나 기록학이 실용학문, 취업이 잘 되는 학문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특히나 요청된다 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글에서 다루는 인간의 특성이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인간은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특수한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하는 윤리적 물음을 던지고 살아가는 보편적 인간이다. 이런 인간은 사실 아키비스트와 무관하지 않다. 〈아키비스트 윤리규약〉의 역사는 오래되었다(후술). 이런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2014년에 〈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이 나왔을 것이다. 또한 2014년 윤리강령 이전에도 한국에서 기록학이 처음 태동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기록전문가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강조는 있었다(오향녕 2002, 10; 신은영 2006; 김희정 2007;

김지현, 2014).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윤리학의 근본 물음을 던진다.

경제학은 윤리학의 일부였다(후술). 이런 역사적 사실은 경제학의 기원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데, 이 점이 중요하다. 주류경제학에 대항한 새로운 경제학이 담론의 기원을 윤리학에 두는 이유도 윤리학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경제학에 속하는 경제인류학과 경제윤리학의 철학과 방법론을 중심에 두고 기록학-인류학-윤리학이라는 새로운 기록계열을 그려볼 것이다.⁴⁾ 2장은 특이한 기록상황에 처한 어떤 아키비스트(가명: K)의 체험을 인류학 방법론(참여관찰, 기술지작업)으로 기술했다. 기술방식은 이야기기술(Narrative Description)을 시도했다. 그래서 2장은 논문체가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이야기체로 썼다. 3장은 체험적 진술이 갖는 함의를 인류학적 맥락에서 다뤘고, 4장에서는 윤리적 관점의 가능성을 아키비스트 윤리 규약과 비교하며 분석했다. 5장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의무와 특권을 다루면서 논의를 종합했다.

2. 아키비스트 K의 이야기

1) 법률적 인간의 죽음

그 해는 겨울이 먼저 왔다. 그리고 연이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K는 검찰청에 불려갔다. 참고인 조사라며 출두하라는 것이었지만 막상 가보니 상황은 달랐다. 피의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 순간, K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공문서가 위조라도 된 것인가. 악취가 풍겨왔다.

4) 경제윤리학과 경제인류학은 Sen(1987), 김영진(2005), 塩野谷祐一(2002), Wilk and Cliggett(2009), 원용찬(2012), Hann and Hart(2011) 등을 참조하였다.

검사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땡’ 내리쳤다.

“아이 정말, 이 사건 어렵네! 이번처럼 힘들고 짜증나는 수사도 처음이야!”

K는 폭력 앞에서 움츠러들었다. 한편으로는 참고인이면 몇 가지 사실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보내줄 일이지 마치 네 죄를 너가 알고 있으니 자백하라고 하니, 이걸 어느 나라 법인가. 새삼스럽게 저항심이 밀려왔다.

2008~2009년의 기록연대기에는 ‘검찰의 대통령기록물 수사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 K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일했다. 그 중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업무도 있었다. 검사는 기록관리비서관실과 업무혁신비서관실(청와대의 이지원시스템 담당)이 작당해서 처음부터 기록물을 봉하로 빼돌리려 했는데 그 이유는 노무현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사는 K가 작성했던 보고서, 기록관리비서관실의 문서, 특히 전자기록물 이관작업을 위해 업무혁신비서관실과 협의한 문서를 들이밀면서 이 문구가 그런 뜻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K는 정말이지 환장할 노릇이었다. 검사는 자신의 눈으로 기록을 봐야 한다고 시종일관 강요했다. 그것은 동일한 문서에 대한 뜻밖의 새로운 해석이었다. 반면, K는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절차를 준수하면서 이관작업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이 ‘적법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동일한 기록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둘에게는 공동의 관심사가 없었다. K는 의문이 들었다. 법률기관 아카이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 누구와 기록대화를 나눠본 적이 과연 있었던가. 앞으로도 있을 것인가. 검사의 관점은 확연히 달랐다. 정서도 달랐다. 검사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었다. 마치 완성된 시나리오를 손에 쥐고 촬영을 하는 영

회감독처럼, 검사는 범죄 시나리오를 구현할 등장인물을 캐스팅 하고 있었다.

K는 아침 10시쯤인가 들어갔다. 점심도 거르고 수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수사는 끝날 줄 몰랐다. 저녁이 되자 검사는 밥 먹고 하자며 K에게 밥을 시켜줄 테니 같이 먹자고 했다. K는 마음속으로 이걸 좀 곤란하지 않나 싶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밥을 먹는 자리도 아닌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같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는 없었다. K는 먹지 않겠다고 했다. 검사와 수사관은 어딘가에서 밥을 시켜서 먹었다. K는 그 시간에 복도에 앉아 있었다. 검사실은 보안시설처럼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다. 관계자 외에는 쥐도 드나들 수 없었다. 어둠이 들어오자 텅 빈 복도는 침묵과 음식 냄새로 꽉 찼다.

“누군가 요제프 K를 중상모략 한 게 분명했다.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이날 아침 느닷없이 그가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카프카의 〈소송〉은 이렇게 시작된다. 체포된 날 아침 풍경은 다음과 같았다.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던 집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건너편 집에 사는 할머니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 이날 아침에는 아주 호기심에 찬 얼굴로 관찰하고 있었다. 웬지 불쾌한 마음이 들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어떤 용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실용적인 옷을 입은 사람이 허락도 구하지 않고 들어왔다. 그는 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평화롭던 일상이 있던 방은 그 순간부터 감금장소가 되었다. 어리둥절한 나머지 “누구신가요?” 묻자, 단단한 체격은 질문을 묵살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만 심문하기 시작한다. 눈길도 외면했다. 그는 문밖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연신 상황을 보고했다. 이들은 좋은 뜻으로 이려고 있으며 다 잘 될 것이니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회유했다. 우박을 지르면서도 자신들의 친절한 태도는 직무수행을 벗어나 규정위반까지 갈 수 있다며 배려하는 마음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부수적인 원가를 은근히 요구했다.

K는 마치 카프카가 설정한 부조리 연극의 무대에서 요제프 K를 연기하는 것 같았다.

수사가 재개되었다.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형식. 서로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 검사는 죄를 찾았고, 아키비스트 K는 적법했던 기록상황을 이야기했다. 밤이 가는 줄 모른 채 동문서답이 이어졌다. 새벽 1시쯤인가, 2시쯤인가. K는 깨끗하게 출력된 꽤 두툽한 진술서를 읽고 맨 끝에 지장을 찍었다. 빨간색 지문이 유난히 돋보였다. 진술서를 돌려주자니 K는 마치 자기 몸이 감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서글퍼졌다. 책상을 깨끗하게 치운 검사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수사와 상관이 없는 말이라며 먼저 운을 뚫다. 검사는 K에게 또렷하게 눈길을 주면서 다 기록을 위한 일이고 수사가 잘 마무리가 되면 기록관리가 발전할 것이라고 자신 있는 태도로 말했다. 검사는 그렇게 <소송>의 등장인물처럼 친절을 베풀었다.

글쎄? 정말, 글쎄?

카프카는 아침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며 소송을 마무리한다. “한 남자가 K의 목에 두 손을 대자, 다른 남자는 그의 심장에 칼을 찔러 넣어 거기서 두 번 돌렸다. K는 흐려져 가는 눈으로 아직 두 남자가 자기 코앞에서 볼을 서로 맞댄 채 결말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개 같군!” 하고 그는 말했으나, 자신은 비록 죽어도 치욕은 남을 것 같았다.” 카프카가 카프카적인 상황을 썼던 시기는 1914~1915년 무렵이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났다.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야 카프카의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을까?

K는 밖으로 나왔다. 어느 특이한 새벽녘을 걸었다. 새벽풍경이 들어왔다. 서초동 검찰청 앞 8차선 도로와 양 옆의 인도, 그리고 그 주변의 건물과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동차 같은 것. 새벽풍경은 불길한 선풍기였다. 몸 안의 장기까지 파고드는 음산하고 스산한 냉기를 내보냈다. K는 하루 종일 굶었다. 그러나 공복감은 없었다. 그런데 어깨가

결려왔다. 하루 종일의 긴장감 때문은 아니었다. 고문피해자는 고문 시 육체적 고통은 잊을 수 있지만 당시 겪었던 굴욕감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인신구속에서 풀려나면서 서서히 굴욕감도 풀려났던 것일까. 어깨가 뭉치기 시작했다. 하루빨리 ‘검찰이 주도하는 기록발전’이 있어야 선풍기도 사라지고 결린 어깨도 풀어질 텐데, 그 날이 언제가 될지? 한 세기가 지나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5월이 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이 서거했다. 당시 K는 국가기록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날은 숙직을 서는 날이었다. 성남의 나라기록관에서 밤을 샜다. 낮부터 시작된 충격이 증폭되었다. 슬픔, 당혹감, 분노, 알 수 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소용돌이쳤다. 국가를 지켜야 하는 당직 근무자는 자신조차 지키기 힘들었다. K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어딘가로 가야만 했다. 그 곳에는 노무현대통령이 심은 나무가 한 그루 있다. 고립된 채 혼자 견디어야 했던 나무 주변을 K는 서성댔다. 퇴임 직전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당시 나라기록관에 있었다. 대통령은 이리 저리 시설을 돌아보고 기록 종사자들과 기록을 주제로 대화도 나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대통령은 떠나려고 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나라기록관 직원들이 도열했다. 대통령은 수줍게 웃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

“기록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대통령 서거사건은 기록상황으로 축소될 사건은 아니다. 검찰의 대통령기록물 수사사건은 두툼한 문서철에 속하는 한 건의 문서처럼, 일련의 사태(2008~2009)에 귀속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K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계제가 아니었다.

노제를 하는 날이었다. 그 날 K는 광화문 정부청사에 있었다. 업무협의 차 어떤 부서와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 도중, 이미 노제는 시작되었다. 회의멤버들은 적당히 회의를 끝내야 했다. 정부청사를 나와서 걸었다. 세종문화회관으로, 덕수궁으로. 고인을 보내는 사람들은 덕수궁

앞 서울광장에서 서글픈 노제를 했다.

한 낮의 우울이었다.

그 곳은 잠시 스쳐가는 곳, 영원히 그 곳에 있을 수는 없었다. 거대한 노제행렬이 빠져 나갔다. K는 거리에 남았다. 어디로 가야 할까? K는 북서쪽으로 하염없이 걸었다. 마포의 경의선 철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른바 무젤만(*der Muselmann*)은 수용소의 어법으로는 동료들 저버리고 자신도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수인을 가리켰다. 무젤만의 의식에는 선과 악, 귀함과 천함, 지성과 비지성의 대비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는 걸어 다니는 시체이자 마지막으로 꿈틀거리는 신체적 기능들의 묶음이었다. 괴로운 일이지만 그들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우리가 욕실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무젤만이 우리와 같이 가게 되었다. 미라 인간, 산송장이 우리와 같이 계단을 내려가게 된 이유는 별다른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우리에게 그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너도 저렇게 될 거야.’”(Agamben 1998, 정문영 역 2012, 61-62)

무젤만은 어원적으로는 무슬림(Muslim)에서 왔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수용소의 고참들은 힘없고 무능력하고 (가스실로 끌려가는) 선발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한 불운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무젤만이라는 용어를 썼다.”(Levi 1947, 이현경 역 2007, 133)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젤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은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낸다는 점을 제외하면 심리적인 변화조차 관찰되지 않는다. 그런데 체중이 계속 감소하면 얼굴표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눈빛이 흐리멍텅해지고 얼굴은 무관심하고 기계적이며 슬픈 표정을 띤다. 계속된 영양부족으로 얼굴이 붓고 몸에 종기가 생기고 설사가 계속 나오는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관심한 채 모든 관계로부터 스스로 차단된다. 동작은 굼뜨고 무릎은 굽

히지도 못하고 몸은 와들와들 떨며 살다가 그들은 비참하게 죽는다.) 결국 수용소를 관리하고 죽음을 집행하는 권력에게 무젤만은 통제를 위한 타의 모범이었다. ‘너도 저렇게 될 거야. 서서히 죽어갈 거야. 헛된 기대는 품지 않는 게 좋아.’

슬픈 기록의 연대기에서 K는 서서히 죽어가는 무젤만이었다. K는 우선 “잠을 살해당했다.” 잠들지 못하는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 아팠다. 생각할 수 없었고,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할 수 없었고, 몸을 둘 곳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했다. 누군가의 고통은 그 사람의 고유한 리듬감에 있다. K는 자유로 상징할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기록정신을 상실한 채 신체적 기능만 꿈틀거리는 무젤만이었다.

K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아키비스트가 되었으니 생명을 준 부모는 법률이었다. 그런데 이 잔인한 부모는 생명을 주고는 다시 생명을 거둬갔다. K가 살았던 법률적 인간은 이제 죽었다. 슬픈 기록의 연대기에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 만든 어떤 존재의 상징적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지 않을까? 의학기술의 발달(연명치료)로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처지에 몰린 인간에게 때로 살해이든 자살이든 죽음은 행운일 수 있다.

2) 새로운 종류의 아키비스트의 탄생

K는 법률기관 기록관리 영역에 속해 기록업무에 종사했다. 작고 소박한 믿음이 그 시간을 지탱해주었다. 이 곳에서 뿌린 기록의 씨앗이 우리 사회에서 잘 자라나 이리저리 쓸모 있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당신은 당신을 파괴시키는 이 사회에 당신 스스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회의가 밀려왔다.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과연, 추구할 가치가 있는 기록의 길인가? K는 법률기관 기록

관리 종사자로 사는 게 거부해졌다. 뭔가,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생각해야 했다.

K는 이런 갈림길에서 한 아키비스트를 만났다.

그 일이 있는 후, K는 북미에서 활동하는 아키비스트들에게 20여 통의 메일을 보냈다. 회신이 속속 도착했다. 멀리 이국에서 온 메일은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처럼 일제히 합창했다.

“행운의 여신이 이번에는 오지 않는다네.”

K는 더 이상 이 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한국이 아닌 이국의 거리를 걷고 싶었다. 그러나 이국으로 K를 데려갈 여신은 오지 않았다. 모두 No라는 짙막한 회신이였다. 공무원의 무미건조한 공문서보다도 삭막한 메일이였다. 예상했던 상황이기에 K는 그렇구나 하며 견디었다. 메일 문서철을 종결해야 했다. 대충 올 데는 다 왔으니 포기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 찰나에 긴박하게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의외로, Yes로 시작되었다. 그 편지는 사무적인 비즈니스 메일이 아니라 따뜻한 편지였다. 가고 싶었던 곳, 갈망했던 그 곳으로 향하는 보딩 티켓이었다. 메일을 읽으면서 K는 움직일 수 없었다. 이미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하루 종일의 조용한 부산함은 모두 사라졌다. 커다란 사무실의 한 책상에만 등이 켜져 있었다. K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은 채 이국의 편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그런데도 갈증이 났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출력해서 찬찬히 밑줄을 그어가며 정독했다. 다시 여러 번.

이 사람은 누구일까?

테리 쿡(Terry Cook, 캐나다, 1947~2014)이라는 저명한 아키비스트를 누가 모른단 말인가. 그가 쓴 많은 연구논문을 읽으며 한국의 아키비스트들은 기록학을 배웠다. 그런데 편지를 반복해서 읽을수록 K에게는 궁금함이 일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 수 있을까(Who can this be)? 그 순간은 연구논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저명한 아키비스트를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한국인이 메일을 보냈다. 더구나 영터리 영어였다. 그런데도 그는 진지했다. 전후맥락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판단능력. 그 동안 잘해왔어요 계속 걸어가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따뜻함. 그래도 아키비스트가 추구해야 할 기록은 이것일 테니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혜로움: K는 짧은 답신에서 판단능력, 따뜻함, 지혜로움을 읽었다. 영화 한편 보려고 극장에 들어갔다가, 뜻하지 않게 평소 만나고 싶었던 영화감독을 만나 영화의 본질을 들은 것 같았다. 친절한 편지 한 통은 기록의 본질에 대해, 아키비스트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었다.

테리 쿡은 이런 말을 해주었다.

“휴머니즘에 방점을 찍은 것 같네요. 방향 잘 잡았어요.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입니다.”

그렇구나, 휴머니즘이었어. 인간이었어. 중언부언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 마디만 써도 보냈다면 되었을 것을, 왜 그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긴 글을 써 보냈을까?

짧은 문장, 그러나 든중한 의미였다. 당시 K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업무만을 기록하는 것은 기록공동체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것은 아닌가. 더구나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위험하기조차 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조리 없이 중언부언 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신이 No였을 것이다. 그런데 테리 쿡은 그런 모습을 타박하지 않았다. 사실 K는 온갖 미사여구는 다 써서 보냈다. K가 보낸 메일에는 책임질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말들로 가득했다. 그런데도 테리 쿡은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확하게 한 마디로 요약해 해주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놀라운 문장이 이어졌다.

“아카이브의 영혼을 찾고 있군요.”

10대 무렵에는 매우 진지하게 영혼을 받아들인다. 연애할 때도 영혼의 언어를 쓰곤 한다. 문학이든 영화이든 ‘소울 메이트’가 테마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는 아니다. 여기 아카이브는 공동묘지와도 같아서 모든 죽은 것들이 묻혀 있는 곳이 아닌가. 살아 있는 것들은 아직 입장할 수 없고 오직 종결된 이후에나 고평이도 살 수 없는 보존서고에 들어가 영원을 꿈꾸는 곳이다.

오직 업무수행의 증거라는 준엄함만이 있는 곳에서 영혼? 이 말은 또 무슨 말일지? 영혼이란 말이 아카이브에서 가능한 말일까? 문학적 메타포로 쓰일 수는 있어도 또는 연애편지에서 애절한 마음을 담아 쓸 수는 있어도 기록학이라는 학문과 기록현장에서는 쓰일 수 없는 말일 텐데, 어떻게 이 저명한 아키비스트는 영혼이라는 말을 이쪽 업계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인간의 삶을 담는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활동을 담는 아카이브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설령 일상의 인간적인 삶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도 국가권력의 아카이브에서는 성립불가능한 말이 아닐까?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K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저명한 아키비스트가 영혼을 언급했다면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기록의 상징적 메타포로 읽으려고 노력했다.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며 몇 해를 보냈다. 아무리 그래도 오리무중이었다. 편지에는 그렇게 슬쩍 스쳐가기에는 깊숙한 진지함이 있었지만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K가 편지를 읽은 지도 벌써 7년이 지났다. K는 여전히 고승이 던져 준 화두를 짊어진 채 끙끙대고 있다.

테리 쿡은 어떤 영혼으로 살았던 사람일까? 어떤 영혼으로 살았기에 한 문장만으로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일까? 테리 쿡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2주 동안 유럽에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

습니다. 오늘 돌아와서 메일을 확인하고 회신합니다. 미안합니다.”

글쎄, 서로 잘 아는 처지도 아니고 내외하며 예의를 차려야 하는 사이도 아닌 걸. 굳이 예의를 지키며 이차저차 사정을 알릴 이유는 없다. 더구나, 미안하다니, 테리 쿡이 지하철 안에서 K의 발을 밟은 것도 아닌데 미안할 일이 될 수가 없다. 꼭 회신해야 할 의무도 없고 즉시 회신하자는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스팸 메일로 처리될 수도 있는 그런 무수한 메일 중의 하나일 뿐이다. 한국의 기록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회신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적 기한인 2주를 넘길 수도 없다. 그러나 2주를 딱 채운 후에 정보부 존재를 통보하는 공문서라면 어떨까? 원하는 정보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왜 줄 수 없었는지, 어떻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을까? 많은 미사여구를 써도 삭막한 메일이 있다. 반면, 간단히 몇 자를 적은 것만으로도 감성의 먼지를 일으키는 편지가 있다. 유럽의 어디였는지, 학술대회 참석차였는지, 가족여행이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첫 문단부터 남달랐다. 그것은 회신이 늦었다는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다. 마른 땅에 내리는 비가 먼지를 일으키듯이, 처음부터 뭔가를 자극했다.

“혼자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수 없이 꿈꾸어 보았다.”(Grenier 1977, 김화영 역 1997, 7)

이국의 어느 거리에 서서 편지를 읽는 것 같았다. 낯선 여행지에서 첫 발을 내딛을 때 당겨지는 호기심은 그 전에 지녔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한다. 지식, 신념, 편견 같은 것들을 밀쳐두고 상대방을 낯선 여행지처럼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되어 상대방의 코끝까지 바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낯선 여행지를 호기심으로 돌아보듯이 그 사람을 여행하지 않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더구나 지금은 확인할 수조차 없게 되었지만, 테리 쿡은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한번은 테리 쿡을 직접 만났다. 2012년인가, 한국외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는 세계 각지에서 명성이 높은 아키비스트들이 대거 초대된 자리였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아카이브의 세계적 동향을 접할 수 있었고, 논문으로만 접하던 연구자를 직접 볼 수 있는 신선함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도 꼭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다행히 테리 쿡을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제가 메일을 보낸 그 사람인데요, 기억하시는지.” 그러나 K는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다. 단 한 번 주고받은 메일을 말하는 것이 쑥스러웠다. 그냥 얼마 전까지 한국의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일했던 아무개라고 정도만 소개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의례히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도 테리 쿡은 따뜻하고, 유쾌하고, 친절했다. 얼굴에는 호기심이 있었다. 마치 다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가 그 감격으로 편지를 읽는 것 같았다.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애써 기억해보려 해도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런데도 그 날 그 장면은 선명하다. 그 날 붙었던 훈풍은 K에게 다가와, 영혼으로 들어갔다.

“그림은 말할 것도 없이 인생과 문학에서도 모델이 없다는 것은 예술가에게는 직업적인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술과 행동, 영혼의 성장과 지식에 있어서 모델이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그들의 인생관을 확장시키고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다.”(Walker 1983)

전문지식을 확충하려면 연구논문을 읽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정원에 들어가 인생관을 농사지으려면 화가가 되어 자기 인생 앞에 다가온 모델을 그려야 할 것 같다. 테리 쿡의 심장에 어떤 영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영혼에서 나온 피 한 방울은 K의 몸으로 들어가 심장을 도는 피가 되었다. 한 통의 편지는 일상사의 우연한 만남이었고 옷깃을 스치는 인연이었다. 그래도 K는 영혼의 접목을 믿으며 산다. 인생 전반을 관장하는 그런 훈풍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록인생을 통솔하는 바람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키비스트로 살아가려면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이런 윤리학의 근본 명제를 스스로에게 던질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무엇일까? 곤궁에 처했을 때 존경하는 선배 아키비스트가 보내준 짧은 편지 한 통, 그보다도 더 짧은 만남이 K에게는 중요하다. 법률적 인간의 죽음에는 카프카 연극무대가 필요했다. 반면, 새로운 종류의 아키비스트로 성장하는 데에는 화가-모델이 요긴했음을 이제는 안다. 그것은 아키비스트 상호관계나 보편적인 인간관계에서 만날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비로소 영혼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3. 체험적 진술과 텍스트

검찰 조사실이라는 특이한 기록현장과 그 속에서 벌어진 사건, 그리고 이것을 법률적 인간의 죽음과 새로운 아키비스트의 탄생으로 해석해서, 기록공동체와 사회에 말하는 이런 방식은 어떤 의미일까?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 여기서는 2장의 체험적 진술의 기록학적 함의를 다뤄본다.

1) 기록기술지 작성원리

질적 연구방법론과 더 좁혀서는 인류학적 방법론을 활용해서 기술지를 작성했다. 인류학은 질적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둔 학문이다. 질적 연구방법론은 왜 필요할까, 언제 필요할까? 그것은 침묵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 이슈에 대한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를 필요로 할 때, 이야기를 공유해야 할 때, 권력관계를 최소화해야 할 때, 글을 쓰고 싶을 때 (공식적인 학술적 글쓰기 방식인 양적 방법론-논문체가 아닌 문학적

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전달해야 할 때), 양적 연구를 보완해야 하거나 또는 양적 측정과 통계분석이 적절하지 않을 때, 그리고 연구대상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기술해야 할 때 등이다. 그렇다면, 질적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헌신해야 한다. 둘째, 다시 분류해야 한다(기존의 분류법으로 연구대상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의 관점에서 다시 분류해야 한다). 셋째, 글을 길게 써야 한다. 그 이유는 논증을 통해 복합적인 관점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자연과학 연구에 참여하거나 활용해야 한다(Creswell 2007).

질적 연구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일상적 행동과 개념을 구체적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경험세계와 의미세계의 고유성과 연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해석할 때 당사자의 주체적 세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셋째, 연구자는 자신과 연구대상 사이에 공통의 개념이 없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넷째,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대등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노영주 1998; 조용환 1999; Creswell 2007).

사실 필자(연구자)는 사실 애초부터 질적 연구방법론을 의식하고 연구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인간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학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용할 수 있었다. 다만, 연구를 최종 정리하면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이 제시하는 바를 염두에 두었다. 따라서 필자는 질적 연구방법론과 인류학을 가이드로 삼되, 필자의 연구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하면서 수용하려고 했다. 다음과 같다.

① 연구자(필자)는 검찰조사실 등의 구체적인 상황(구체성을 위해 상세한 묘사를 하려고 했다)에서 연구대상(아키비스트 K)의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상대화가 필요했는데, 이는 시간적 거리와 참여관찰로 수행했다. 역사서술을 위해

서는 일정한 시간적 거리가 필요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기록하는 것은 저널리스트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는 전통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적 관점으로 서술하기 시작한다. 다만, 얼마의 시간적 거리가 적절한가는 하는 것은 유동적이다. 이번의 경우에는 대략 10년 전후의 시간대로 잡았다. ‘인생사’를 되돌아보며 당시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서 참여관찰 하는 데에는 10년이 갖는 함의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이다. 참여관찰을 통해 그 시기의 고유성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② 해석의 경우, 당사자의 주체적 세계에서 해석해야 하는데 이 방식은 주체의 재구성이라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이 때 필요했던 것은 연구대상과의 공감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연구대상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을 하는 것인데, 필자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부분은 간단하지 않았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1:1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계에서는 기록기술이 불가능했다. 연극배우가 너무 슬퍼한 나머지 흐느껴 우느라 관객에서 대사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연극배우는 슬픔을 표현해서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지 스스로 슬퍼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다. 결국 필자는 제3의 이야기를 도입하는 방식을 취했다(3장 2절).

③ 다음은 공통개념인데, 연구대상을 ‘대상화 하는’ 계몽주의적 공통개념을 폐기한다고 해서 개념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 설명을 해야 하는 연구자에게 개념이 없을 수는 없다. 특히 현장에서 기록활동을 해야 하는 아키비스트에게 현장개념(working concepts)은 필수적이다. 다만, 연구 전에 선행적 개념을 미리 전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적합한 개념을 발견하려고 했다. 이 글에서는 양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기록물관리 방법론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의 개념을 활용했다.

④ 대등한 존재로 대한다는 것은 서로주체성으로 접목했다. 서로주체성은 ‘고립된 나’의 자기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에서 발생한다. <나는 나>라는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만남은 대등한 만남이 아니다. 서로주체성은 만남의 당사자들이 ‘자기동일성을 망각한 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엮일 때 생긴다. 서로주체성은 고정된 실체의 지배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고양시키는 대등관계다.⁵⁾ 여기에 불러낸 K는 10년 전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향해 열린 서로주체성이다.

텍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다시 이해하고 정리한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부연한다면, 첫째 과거와 현재를 흐르는 시간에 머물고 거주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소여(the given)로서 주어진 사회적 상황을 주체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인간의 행위에서 의미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누구나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며 산다. 과거의 특정 체험을 다시 이해하고 진술해서 텍스트로 만드는 작업은 레코드를 틀어놓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반복은 아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진 어떤 주체가 변화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과거 상황을 설명한다는 의미의 재현이다. 헤밍웨이는 이런 과정을 재현이라고 하기보다는 창작이라고 했다. 창작이든 재현이든, 시간의 간격들 사이에서 다른 정보를 흡수하고, 당시와는 다른 사회적 상황이 펼쳐질 때 시작된다. 의미 없는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2) 기록기술지 서술전략

다음은 기술지 작성에 관한 내용이다. 질적 연구방법론과 인류학에

5) 서로주체성은 철학자 김상봉의 개념이다. 김상봉의 『자기의식과 존재사유: 칸트철학과 근대적 주체성의 존재론』(1998), 『호모 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1999), 『철학의 현장: 518을 생각함』(2015)를 참고하였다.

서 기술지 작성은 중요한 방법론이다. 필자는 기록상황에서 연구를 했다. 인류학자가 아니라 아키비스트의 정체성으로 기록상황을 이해했고, 필자가 작성하는 것도 기록기술지이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록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했다. 기록기술지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기록상황에서 다시 말하기(retelling)를 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방법론에는 다섯 가지 접근법이 있다.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등이 그것인데(Creswell 2007), 이 글에서는 섞어짓기를 했다. 내러티브와 현상학은 체험한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고 기술하고 전달하려는 필자의 연구취지와 일치했고, 사례연구는 단일 사례나 여러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탐구하고 공유하려는 연구취지와 일치했다. 단일사례는 정신의학의 중요한 방법론이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안나 O〉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정립되었다. 필자는 2장에서 K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런 단일사례는 어떤 맥락에서 그랬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필자는 한 개인의 체험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기록상황으로 이해하고 정리했다. 이 글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해서 체험적 진술을 텍스트로 형성했다. 실제 작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사실 실제 기술지 작성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서술전략으로 이야기체를 활용했다. 이 부분은 공문서와 기술지의 차이로 설명해본다. K는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되기 몇 해 전인 2004년에 기록활동을 위해 검찰에 간 적이 있었다. 당시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세계일보의 기획기사가 커다란 사회적 주목을 받아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K가 근무하던 국가기록원은 지체하지 않고 기록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K가 속한 팀도 몇몇 기관을 담당받았는데 대검찰청도 조사대상이었다. K는 대검(공안부)에 들어가서 기록물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문으로 보고했다. 이 때 공문은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적격여부가 계량화 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 경우, 각각의 기관은 고유성보다는 이런 저런 문제의 대상이 된다. 한국의 관료조직에서 작성하는 공문서 양식은 1963년에 확정된 사무관리규정을 역사적 기원으로 두고 있다. 개조식 문장으로 계량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료제가 지배하는 곳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법률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계적 지배관계에서 인격적 만남이 성립될 여지는 거의 없다. 대면접촉을 하느냐는 부차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인정에 얽매어’ 공무수행을 흐릿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관료조직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법률기관 아카이브에서 기능분석을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론이다. 인간적 사실을 탐구하는 것과 조직의 기능과 직무를 분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이번 연구과제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인간이었다. 인간을 이해하고 탐구해서 인간적 사실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다른 접근법,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후 새로운 성격의 권력이 들어섰다. 정치상황이 바뀌었다. 계절이 바뀌면 새들도 바뀐다. 일부 당황한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는 은유로 심경을 고백했다. 검찰은 어땠을까? 어떤 새로운 지시라도 상부에서 떨어진 것일까?(전진한 2016) 검찰청사라는 물리적인 장소는 같았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의 상이한 상황이었다. 공간을 구성하는 기록의 원리와 공간 속 행위자들의 동기, 언어, 목적은 완전히 상반되었기 때문이다. 2008-2009년 국면에서는 정치적 사법언어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기록을 다루는 동기와 목적은 기록물이 아니라 전직대통령이라는 한 인간으로 향했다. 이것에 필요한 수단(증거)은 기록물과 관련된 연관된 인간들의 진술이었다.

이러한 사법적 상황을 기록상황으로 되돌리려면 새로운 기록언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적 변화(계절의 변화)는 별도 영역이라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는다. 기록상황으로 좁혀본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라면 몇 년 안에 당시 수사기록물이 이관되어야 한다. 만약, 당시 수사기록물을 이관하는 일이 ‘실제 벌어진다면’ 이것 역시 기록상황으로 되돌리는 방식인데, 이것은 법률기관 아카이브가 수행해야 할 법적 사항이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둔 이 글에서는 가장 적합한 탐구양식으로 평가되는 내러티브(현상학, 사례연구 포함)를 적용해서 연구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키비스트 의식과 기록문법-기록언어를 활용해서 기술지를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싶다. 2장이 ‘에세이’로 읽히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의 연구의도와 목표는 다른 데에 있다. 참여관찰-기술지라는 인류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접목한 기록기술지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현행 법률기관 아카이브의 기술서는 기록물 통제와 검색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항목화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다른 아카이브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아카이브의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기술방식을 고민하는 흐름 중에는 이미 내러티브 방법론을 적용한 시도가 나오기 시작했다(이영남 2013; 설문원 2014). 다양한 기술방식의 시도는 기술방식의 변화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강물이 흐르기 전에 강둑이 먼저 생기듯이 북미와 유럽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다 폭넓게 기록기술(archival description)을 봐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조민지 2011). 아키비스트의 언어(언어적 행위)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그러나 이런 반론은 전도된 물음이다.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인류학적 접근은 전문가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조민지 2011; 윤은하 2016).⁶⁾ 특히 아우슈비츠를 겪은 서구사회는 더 이상 비서

6) 이 글을 작성하면서 조민지(2011), 설문원(2014), 윤은하(2016)의 선행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구사회를 향한 자신들의 계몽적 객관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서구사유의 복제품이 아니다. 사유의 방향은 달라졌다. 접근법도 달라졌다.

계몽주의의 일원적 객관성이 폐기되었다면, 그렇다면, 객관성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상대적인 상황인 맥락에 들어가서, 이것은 어떤 종류의 객관성인가, 어떤 의미에서 중립성인가를 묻고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현대철학의 새로운 경향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기록학도 이런 물음을 던지며 사유하고 기록하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두텁게 해야 한다. 아무리 법률의 뒷받침을 받는 아키비스트라도 자기만의 배타적 특권을 내세워 자의적인 기록작업을 할 수는 없다. 맥락에 따라 역할과 임무를 달리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우슈비츠 이전의 계몽주의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 질적 연구와 인류학적 방법론이 필요한 기록현장이라면 그에 따라 현장 텍스트를 작성하고 해석해야 한다.

아카이브의 골간에는 정리와 기술이 있다. “기록물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란 결국, 아키비스트가 대상물에 대해 직접 가하는 간접적인 설명이다.”(조민지 2011, 107) 그렇다면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 각 방면과 일상으로 아카이브가 빠르게 증식되는 상황이라면 아카이브의 전통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확장의 출발점은 아키비스트 자신의 확장이라 생각한다. 확장하는 방식은 아키비스트를 규정하는 틀을 확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몰라도 주관성과 객관성이 서로 대립하는 분단적 대치상황에서는 기록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양관이 함께 침대에 올라’ 주체성이라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아키비스트는 어떤 기록상황인가, 어떤 아카이브가 필요한가에 따라 그에 필요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추구해야 한다.

3) 해석과 의미

인류의 경우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 하나만 있는데 비해, 개미의 경우는 1만 종이 넘을 정도로 종다양성이 크다고 한다. 기록학과 인류학의 관계와 비슷해 보인다. 인류학에는 다양한 종(species)이 있다. 여기서는 역사인류학, 정치인류학, 경제인류학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의미를 짚어본다.⁷⁾

역사인류학은 역사의 행위주체로 인간을 설정한다. 역사를 탐구한다는 것은 인간을 탐구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역사인류학은 경험과 주체성을 다루고, 전통과 근대를 대등하게 다룬다. 전통에서 발전한 근대라는 계몽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자의 고유성을 찾는 것이 역사인류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인류학은 계몽주의를 구현하는 거대담론을 거부하기 위해 미시사라는 새로운 역사서술을 시도한다. 역사인류학이 다루는 주제에는 마법과 마녀, 저항과 폭력, 육체와 성생활, 종교와 신앙, 집과 가족, 사생활과 개인주의, 문자생활, 독서, 매체, 자기 것과 낯선 것, 여자와 남자, 양성의 역사 등이 있다 (Dülmen 2001).

역사인류학의 가장 오래된 주제 중의 하나는 마녀재판 연구이다. 미시사의 고전적 저작인 ‘치즈와 구더기’는 16세기 한 방앗간 주인의 우주관을 다뤘다.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교회권력은 이 차이를 마녀로 처벌하려고 했다. 신앙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주류권력과 다르다는 사실이 악이 된다는 논리는 지금은 통용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러나 과거의 유물로만 머물러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먼먼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역사란 물론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패턴적으로 반복되는

7)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기록학에서 문화인류학도 중요한 접근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윤은하(2016)의 연구가 크게 도움이 된다.

것이 역사이다. 마녀사냥은 중세시대 유럽의 특이한 역사적 현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푸코의 광기의 역사,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파시즘의 광기 등으로 확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2008~2009년의 기록사태는 역사의 반복이었다.

폭력과 이에 대한 저항을 해석하는 데에는 정치인류학의 해석법이 유용하다. 저항의 의미가 일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죽창을 들고 싸운 농민군이 있었다. 당연히 이들은 불의한 세상에 저항을 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은 뭘까? 양반 앞에서는 굽신거리다가 주막에 가서는 막걸리 한잔 하면서 신세한탄이나 하는 사람들, 뒤에서 남 흉이나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치인류학은 이런 것을 저항의 시선으로 해석한다. 그가 부당한 상황에 저항하는 방식은 술을 마시는 행위에서도 가능하고, 험담을 하면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에서도 가능하다.⁸⁾

저항은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일상적 행위이다. 폭력이 있는 곳에 저항도 있다. 저항도 반복된다. 이런 반복된 저항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주체성을 재구성한다(3장 2절). 기록상황을 기술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인류학적 함의로 이해할 수 있는 저항도 가능할 것 같다. 다양성 자체가 진보로 이해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누구나 시대의 자식이다. 아카이비스트가 부당한 현실에 처할 경우 개인적인 상황으로 돌리기보다는 기록상황으로 이해해서 정리기술을 시도하는 작업은 저항에 속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아카이브의 통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카이비스트가 처하는 상황도 이와 짝을 같이 하면서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

8) 정치인류학은 Lewellen(1992), Clastres(1974; 1980) 등을 참조했다. 물론, 1999~2016 시기를 조망하는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분석도 필수적이며, 이에선 이상민(2008), 광건홍(2014), 전진한(2016) 등의 연구가 도움이 된다. 2009~2012 시기 대통령기록사건의 전개과정은 박희정(2014) 석사학위논문, 「대통령기록관리의 쟁점과 대안 모색」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기록물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시야를 인간적 사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아키비스트가 다뤄야 할 인간적 사실(행위, 관계, 경험, 언어)도 때로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폭넓게 포진하고 있다. 인류는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며 역사를 진보시켜왔다. 자기 영역에서 미시적 기록 기술작업을 수행하는 아키비스트도 역사를 진보시키는 일원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동기에 대해 말해본다. 경제인류학은 경제활동의 동기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인간은 원래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만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경제활동의 동기는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미학적일 수도 있다. 그 예로 중세의 가장 큰 교역 주체였던 수도원은 종교적 목적에서, 봉건영주는 관습이나 전통적 목적에서, 그리고 중상주의에서는 주로 권력과 명예를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김영진 2004, 52)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경제행위가 이윤동기에 바탕을 두고, 경쟁적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배논리가 사실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임을 말해준다. 경제인류학은 시장경제의 역사적 기원과 논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니다. 오히려 비시장적 경제체제를 발견해서 각종 시장적, 비시장적 경제체제들을 동일한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장경제는 모든 사회제도를 경제체제의 의해 결정된다는 독트린에 의해 창조된다. 그러나 적어도 시장경제가 주도권을 잡은 19세기 이전에는 인간의 삶에서 경제는 사회적, 문화적 관계에 ‘묻혀 있었다(embedded).’ 이처럼 경제인류학은 물질적 이윤동기로 모든 경제행위를 환원하는 시장기제, 그리고 시장편향적 사유에 대항하는 새로운 경제학에 역사적 사실을 제공한다(김영진 2004: 2005; Wilk and Cliggett 2010; 원용찬 2012; Hann 2016). 사실 이런 지적은 그리 멀리 갈 것도 없다. 요즘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소비하는 동기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기록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기록하는 동기, 기록물을 관리하는 동기,

기록물을 활용하는 동기 등이 다양하지 않을까? 어떤 아카이브는 신앙의 한 구성요소로 아카이브(예: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나 중세 도서관에서 성경을 필사하던 것, 고려시대 대장경 작업을 하던 것), 어떤 아카이브는 권력 유지에 필요한 ‘권력증식’ 아카이브(예: 2008~2012년 기록사태),⁹⁾ 어떤 아카이브는 윤리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타적 기호’(예: 416참사 아카이브)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 장을 달리해서 4장에서 다룬다.

결국 연구자가 K의 체험적 진술(이야기)에서 취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

한 아키비스트(K) 이야기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아카이브의 통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현상이다. 아키비스트를 자임하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기록자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말하자면, 환경에 적응하는 형식으로 아키비스트의 종 다양성이 넓어지고 있다. 기록물의 수량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기록현장은 다양해진다. 이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동기, 목적, 세계관)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록물의 확장은 새로운 이슈가 되기 어렵지만, 특히 인간적 사실(예: 고백과 같은 언어적 행위)을 기록의 영역으로 삼을 수 있다. 나아가,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기록의 범주로 설정해야 한다(이미 민주주의, 기록정의 등의 담론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의 3장에서는 2장의 체험적 진술을 질적 연구방법론과 인류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기록학에서 인간적 사실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탐구했다. 다음 4장에서는 인간학적 맥락의 함의를 갖는 윤리적 관점에 대해 살펴본다.

9) ‘권력통치술’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별도의 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4. 윤리적 관점과 전문성 발달

1) 윤리규약과 진술의무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사관생도도 선서를 하고 군인이 되어 국토방위에 나선다. 사회적 존재는 자신의 믿음과 사명을 사회 속에서 선서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행한다. 전문가라는 사회적 존재는 전통시대 계급이 아니다. 물려받은 특권이 아니라 사회를 보다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자기 전문분야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사회 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이런 선서(공개고백)는 전문직에게 본질적인 의례이다. 그것은 일회성 의례가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그 직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장기지속적인 의례이다. 전문적인 기술은 필요조건이라면 사회구성원과 자기 자신을 향한 공개고백(진술의무)은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profession)에게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 같은 어원을 공유하는 professor를 분석하면서 논의를 심화시켜보자. 대학교수로 번역되는 professor는 대학제도가 일반화하기 전에는 '고백하는 자'였다. 이 말의 어원인 라틴어 *professio*(프로페시오)는 공언, 선언, 표명, 공약, 고백의 뜻을 함께 품고 있다. 하나의 뜻보다는 이처럼 여러 맥락이 서로 협력하면서 고백의 의미는 두터워졌다. 이런 두터움이 있어 각자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앙고백이나 수도자의 서원도 같은 말을 쓴다. 먼저 어떻게 믿는지 고백하지 않고는 누구도 신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을까? 교회 예배 시간에 회중을 대표해 신앙고백 하는 사람처럼,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연인 사이에 은밀히 속는 사랑고백처럼, 프로페서는 자신이 믿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 교수는 지식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믿음을 먼저 고백했던 것이다. 여기서 믿음은 심리의 차원이 아니

라 윤리의 차원이자 양심의 차원이다. 사법질서에서는 증언(증거)의 차원이다. 이런 언어적 행위는 특히 그가 자기 분야를 대하는 태도와 여기서 요구되는 전문지식에 접근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강의실과 강의실 바깥이 하나의 일관된 커리큘럼(일상)으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수와 학생은 믿음고백의 공동체가 된다.

그러나 시장기제가 장악한 대학에서 대학교수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 어려워졌다. 자신이 마음 다해 믿는 것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는데, 그것은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강의평가제도), 연구실적을 쌓는 것이 교수 본분의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 악화된 상황보다도 더 오래되고 깊숙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타적 본성을 발달시키며 진화했다(후술). 윤리적 관점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직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아키비스트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기록에 대한 자신이 믿음이 무엇인지, 인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며, 아키비스트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근거가 없이 믿음을 고백할 수는 없다(이하 진술). 아키비스트는 어떤 근거로 믿음을 진술할 수 있을까?

아키비스트 윤리규약을 분석하며 논의를 이어간다. 미국아키비스트 협회(SAA)가 1992년에 채택한 윤리규약은 법률적 책임 이전에 도덕적 책임을 제시한다. 그것은 자신이 수행한 기록행위를 진술할 의무를 의미한다. “모든 전문 직종에서 윤리규약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다. 그 목적에는 전문적 업무수행 행위로부터 나오는 심각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진술해야 한다는 것,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해결해야 한다

는 것,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가 가진 특별한 전문성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는 보장이다(목적).” 이처럼 진술의무는 아키비스트의 본령에 속하는 사항이다. 문제해결과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과 함께 아키비스트의 의무에 속한다.

ICA가 1996년에 채택한 윤리규약도 마찬가지이다. 윤리규약은 전문에서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것은 고매한 행위규범의 수립이라고 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매한 행위 규범은 아키비스트 신참자에게는 지켜야 할 행위규범으로 작용해야 하고, 기존의 아키비스트에게는 직업적 책무를 상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규약은 아키비스트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고취시켜야 한다(전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적인 신뢰성인데, 그것은 윤리적 행위규범을 수립하고 지키면서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규약은 5조에서 아키비스트에게 진술의 의무를 부여한다. “아키비스트는 기록행위에 대해 기록해야 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5조) 규약 5조의 원문은 ‘보존기록물’(archival material) 처리과정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전문의 취지를 살린다면 해석은 폭넓게 해야 할 것 같다. 기록한다(record)는 것은 문서에 기재한다는 뜻의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전문의 취지를 살려 폭넓게 진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록행위에 대한 진술은 아키비스트에게 의무에 속하고 이것이 공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이상민 2003).

2014년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채택한 윤리규약도 이런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다. 기록전문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는 점,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활동과 사회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자발적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8조)(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4c). 지머슨은 기록윤리 담론은 1990년대의 사회적 격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성장했다고 본다(Jimerson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2016, 488-499). 1996년 ICA 윤리규약도

이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사회도 2008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윤리규약은 이런 점에서 역사적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키비스트의 진술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민주주의 실천의 전통은 아고라에 있다. 아고라(agora)는 ‘함께 모인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고라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박경미 2010). 아고라는 말을 하는 곳이었다. 아키비스트는 아고라에 기록물을 공급해주는 파이프가 아닐 것 같다. 아키비스트 이전에 시민이고 시민-아키비스트이기에 행해야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키비스트가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 모인 곳에서 자기 행위에 대해 진술하는 의무도 실천해야 한다(Zinn 2001).

윤리규약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키비스트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윤리적 관점은 아키비스트의 의무이다. 전문직 종사자이자 사회적 존재인 아키비스트는 개인의 양심에 맡겨진 순수한 결단의 차원에서 행동할 수 없다. 아키비스트는 윤리적 관점에 입각해서 행위를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진술의무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윤리를 규약화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윤리규약(윤리강령)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내재하는 한계가 있다. 첫째, 아키비스트의 윤리적 결단을 방해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는 일상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맥락에 맞는 윤리적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규약에는 구체적인 맥락이 없기에 지침이 명료하지 않고 애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오히려 아키비스트의 윤리적 재량권을 훼손할 수도 있다. 아키비스트는 기록상황을 해석해서 어떻게 행동할 지를 결정하는 전문직 종사자이다. 이것이 재량권의 영역인데, 윤리규약은 이런 재량권을 제약할 수 있다. 둘째, 현재처럼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

에 초점을 둔 규약은 폐쇄적일 수 있다. 이는 기록전문직 외의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여 소통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카이브의 본질이 윤리적 관점에 있다는 점을 가리고 정보적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윤리규약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Jimerson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2016, 494-498).

지머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하나는 물음이고 또 하나는 목적론적 언어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윤리학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물음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아키비스트가 이런 물음을 던지고 기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간다면 이 과정에서 윤리규약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윤리규약의 제정과 준수에 앞서 윤리적 관점이 먼저 논의되고 담론적으로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키비스트의 진술의무는 윤리규약보다는 윤리적 관점에서 봐야 잘 보인다. 진술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고, 아키비스트가 어떤 존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요컨대, 윤리규약 이전에 왜 윤리적 관점을 취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윤리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을지, 무엇을 근거로 관점을 형성해야 할지를 살펴야 한다.

2) 윤리적 관점

기록학은 윤리학일 수 있을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더라도, 기록학을 인간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 넣는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는 탐구해보자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기록학은 실용학문으로 분류된다.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정보적 가치가 유난히 강조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또한 이미 윤리규약이 있다는 점 때문에 윤리규약의 차원에서 기록의 윤리성을 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윤리규약의 한계에 대해 1절에서 말한 바도 있지만, 기록과 인간 간의 관계가 단순히 정보적 관계로만 이해되거나 시장경제 매커니즘의 상품관계, 또는 교환관계로만 축소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3절).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심화하고 다리를 놓기 위해 기록학을 경제윤리학(또는 경제학과 윤리학)과 연결한다.

애초 경제학은 윤리학에 속했다. 현대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는 도덕철학 교수였다. 그런데 주류경제학은 1970~80년대부터 극한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을 정립하면서 윤리적 성격을 탈색했다. 탈윤리적 경제는 단순히 이윤을 취한다는 사실보다도 인간의 이타적 속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들어오는 자여, 모든 우애를 버려라”라는 단테의 경구는 시장경제의 본질적 속성을 말해준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현상일까? 개선이 필요한 사회제도로만 제한할 수 있을까? 인간의 삶과 연결하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곤궁만으로 한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새로운 경제학은 경종을 울린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인류사적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는 점을.¹⁰⁾

새로운 경제학은 인간을 상호적 인간을 상정한다. 반면, 주류경제학은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가정한다. “주류경제학에서 인간은 호모에코노미쿠스, 즉 경제적 인간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물질적 이익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둔다. 또한 뛰어난 정보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정말 그럴까?”¹¹⁾ 진화론을 ‘이기적 유전자’라고 잘못 이

10) 이 글에서는 최정규(2009), Axelrod and Hamilton(1984), Nowak and Highfield(2011), Singer(2011) 등 경제학과 정치학, 윤리학의 이타성 담론을 참조했다.

11) 정태연, 이수연(2013)은 『협동의 경제학』을 통해, 경제인류학이나 경제윤리학이 아니라 행동경제학, 협동의 경제학,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등 대안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학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장기 지속적으로 전개되려면 이런 경제학을 품어야 한다고 본다.

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기적 유전자』(이 책의 초판은 1970년대에 나왔다)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협력진화 방식인 티포렛 전략을 다룬 책(로버트 엑셀로드, 2009)의 추천사에서 ‘이기적 유전자’의 진정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나는 지구 위 모든 사람이 이 책을 공부하고 이해한다면 이 행성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고 굳게 믿는다. 세계의 지도자들을 모두 가두어 놓고 이 책을 준 다음 다 읽을 때 까지 풀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그들 개인에게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생명체는 자기증식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포유류는 이 생명의 명제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며 진화했다. 인간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어떤 진화가 올바른 진화인지 윤리적 관점을 갖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이 진화하는 방식이다. 이기적 유전자와 주류경제학의 이윤증식은 아무 상관이 없다. 마치 19세기 서구 제국주의가 진화론을 사회진화론 이데올로기로 증폭해서 폭력의 도구로 악용한 것과 같다. 진화생물학은 이런 논의를 경계한다.

인간은 사회적 포유류에서 진화했고 여전히 사회적 포유류에 속한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가 아니다.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타적 존재라는 점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이타적 속성(소통, 나눔, 협력, 헌신, 정의 등)은 ‘고상한 품격’이 아니라 사활적인 생존조건이다. 뱀은 이타적이지 않으면서도 자기 생애를 살고 간다. 만약 뱀이 이타적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매우 고상한 품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포유류인 원숭이는 무리 속에서 이타적인 협력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사회적 포유류에 속하는 ‘인간은 이타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선한 저주 받은 존재’인 것이다. 윤리적 관점이 없는 물질적 이해관계만으로 운영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안전망이나 공공영역까지 시장기제가 침투해 들어가 작동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파괴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경제윤리학이 행위와 동기를 다루면서 경제의 윤리적 기원을 찾으려는 것도, 기록학에서 윤리적 기원을 찾아야 하는 것도, 윤리적 관점의 핵심적 성격 때문이다.

경제윤리학은 경제학의 기원을 둘로 구분해서 이해한다. 하나는 윤리학적 기원(ethics-related origin)이고, 다른 하나는 계산논리적 기원(logistic-based origin)이다. 윤리적 관점은 윤리학적 기원에서 나온다. 윤리적 관점을 취할 경우 두 가지 쟁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첫째, 윤리적인 속고가 일상의 인간행위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물론 인간이 언제나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나 광기는 윤리적 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동기에 대한 윤리적 관점'을 취할 경우 인간은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성취의 가치를 판단할 때 정의(right)와 선(good)와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객관적 이익'을 사회적 성취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계산논리적 기원은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진정한 통치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일에서가 아니라 진짜 이익이 되는 일에 종사한다. 진짜 이익의 기준은 피통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적 성취를 판단하면서 인간은 객관적인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인간이 항상 윤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 행동을 위해서는 윤리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윤리적 관점을 갖는 것이 간단하지도 않지만, 비록 관념적이라고 윤리적 관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윤리적 관점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의 차이는 본질적이다. 윤리적 관점은 자기 점검과 방향설정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계산논리적 기원에 토대를 둔 공학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행위와 동기에 대한 편협하고도 탈윤리적인 관점에서조차 제한적이거나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현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두 접근법의 균형이다. 사회연대의 윤리를 제도화한 복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사회보장제도 등은 이런 균형에서 나왔다. 문제는 199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이런 균형을 허물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인류학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윤리적 관점에 입각해 윤리를 제도화 해야 하는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Sen 1987; 塩野谷祐一 2008).

기록학에도 윤리적 관점이 요청된다. 기록학은 기록물에서 출처를 찾는 단기성보다도 인간, 또는 삶에서 출처를 찾는 장기지속성을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 기록학은 아카이브(기록물-정보적 가치, 기록자, 기록보관소)의 설립과 확장에 최종 목표를 두기보다는 이타적 가치(정의, 민주주의, 나눔, 헌신, 협력, 소통 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다행히 기록학에도 정의와 민주주의 기록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공동체아카이브, 밀양이나 416참사 아카이브 등은 이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하겠다. 이타적 불씨는 피어올랐다. 불이 번지려면 인화물질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윤리적 관점이 인화물질이거나 인화물질을 만드는 작용을 한다고 본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자락에 깔고 있다.

아카이브의 새로운 흐름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리한다면, 기록학은 목적의식적으로 이타적 삶을 위한 기록제도를 담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를 이야기할수록 이타적 가치를 더 많이 사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아키비스트의 전문성과 전문성 발달은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경험의 축적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록학은 윤리적 관점을 갖춘 아키비스트의 가능성 조건을 사유해야 한다. 기록의 윤리적 기원을 찾아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타적 기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 법률기관 아카이브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다.

기원이라는 표현에는 과거로 간다는 뉘앙스가 짙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는 기원은 꼭 과거의 어떤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키비스트의 현장경험과 사회적 실천에서 기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현장경험을 사유(진술-연구-담론

화)하는 실천은 윤리적 기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계열의 전문지식을 생산한다. 사유는 현장 종사자들도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좁은 의미의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모든 현장종사자가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좀 다른 종류의 기록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데, 이것은 <전문성 발달>로 접근해야 한다(3절). 현장경험을 지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직 기록학에는 낯설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오래된 이야기이다. 특히 내러티브 방식으로 교육에 접근하는 교육학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두고 형성하는 지식을 ‘개인적, 실천적 지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이라고 본다(노영주 1998; Connelly and Clandinin 1988; 이호신 2013). 이런 계열의 전문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아카이브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기록학은 아카이브에 관한 한 중심을 잡아야 할 책무를 스스로 자임해야 하지 않을까? 기록물의 수량을 다수 확보하는 것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 글은 인간과 기록을 보는 방식, 대하는 태도를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이 인간학적 맥락을 갖는 기록의 관점이다. 기록학은 윤리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

3) 전문성 발달

여기서는 아키비스트를 어떤 존재로 분류해야 할지를 다루고, 이와 연결해서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또는 이런 능력을 지닌 존재의 재인식을 다룬다. 시장경제는 이런 물음을 차단한다. 물음을 차단하는 이유는 이런 존재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이윤획득을 위한 교환관계, 또는 교환가치의 확대를 위한 상품관계를

욕망한다. 법률기관 아카이브의 기록관리종사자에게 기록정보서비스(정보공개 포함)는 중요하다. 그러나 교환관계에 들어서면(이때 아키비스트가 다루는 것은 기록물이 아니라 ‘정보-상품’이 된다) 백화점 상품 판매원과 같은 서비스종사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진다. 관료제의 비인격적 관계에 더해 실적과 경쟁이라는 시장기제가 작동하는 교환관계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반면, 경제인류학은 인간의 삶에 요구되는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는 실제 관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예를 들어, 경제인류학의 전통적 주제 가운데 하나인 ‘선물과 교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경제적 관계(예: 돌아오림의 기록자)에 들어서면 비로소 기록의 의미를 다시 묻고, 아키비스트라는 존재를 재인식하려고 시도한다.

아키비스트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종류의 전문성을 지닌 존재이며, 어떤 사회적 존재로 분류할 수 있을까?

앞서 돌아오림의 저자들의 특성에 대해 잠시 언급한 바 있다. 기록의 의미가 단순히 정보적 가치를 관리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오히려 아키비스트는 정보관리 업종보다는 돕고, 돌보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등의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프랙티션(practitioner) 업종에 더 가깝다. 프랙티셔너(practitioner)는 이타적 방향성을 가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 상대의 관점을 취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전문적 행위가 비로소 의미 있다는 점을 깨닫기 때문이다. 또는 변화의 기법은 결국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기의 인간적 사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Skovholt 2001).

프랙티셔너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정치, 법률, 교육, 서비스 업종, 시민운동 등은 이런 원리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면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접목하는 것과 민주주의의 발달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윤리적 관점이다. 프랙티셔너의 본질적 기반은 윤리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프랙티셔너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이다. 전문성 발달을 위한 주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제로는 다음의 셋을 들 수 있다. 첫째, 전문적인 개별화(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가치, 신념, 기법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가치, 신념, 기법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 지속적인 전문적 자기성찰(reflectivity: 무엇을 하느라(doing) 바쁜 상황에서 빠져 나와 직무상 체험을 다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며 일종의 프로세스로 이해하는 것), 셋째, 인수된 지식에서 구성된 지식으로 옮겨가는 것(진실은 그것이 적용되는 맥락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과정은 결과를 달성하는 프로젝트 형태의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적인 면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길고 느리고 일정하지 않은 시간을 겪는다. 둘째, 불안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뭘 자꾸 해야 한다는 불안감, 뒤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비인간적인 자료보다 인간 간의 만남에서 더 영향력을 받기 시작한다. 넷째, 일상적 삶이 전문적 기능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알게 된다. 다섯째, 외부적인 지지가 변화의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섯째, 모델링과 모방이라는 학습관계를 형성해 이득을 받기 시작한다. 일곱째, 한계와 책임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 여덟째, 자기애적(narcissistic) 관계에서 이타적 관계로 입장이 재편되기 시작한다. 아홉째, 인간의 다양성을 접하면서 참을성이 커지고 수용성을 얻기 시작한다(Skovholt 2001, 유성경 역 2003, 59-78). 프랙티셔너-아키비스트에게도 이런 인간적 사실이 전문성 발달의 표시가 될 것이라 본다.

전문성 발달의 관점에서 아키비스트를 살펴본다.

2장에 등장하는 K는 전문성 발달의 관점에서 소개되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라는 한계가 있다. 돌아오렴의 기록자들도 전문성 발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지만 다른 표시를 좀 더 살펴보겠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KARMA』라는 기관지를 낸다. 이 책은 학술지가 아닌 장점을 활용해서 체험적 진술을 많이 실는 편이다. 책의 표지에는 전체 주제가 표기되는데, 자유, 성장, 벗 같은 테리 쿡이 말한 영혼의 언어가 차지한다. 내용 중에는 〈주장과 제언〉에 체험적 진술이 많이 실리는 편이다.¹²⁾ 카르마는 전문성 발달의 중요한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416 참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보자.

“정작 ‘청해진’의 아키비스트가 아닌 저는 오늘 당장 내려야 하는 결정도 없기에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야 말았다는 비겁함을 고백합니다. ‘생명’도 아닌 ‘기록’을 두고 이렇게나 비겁해지는 제가 무섭기도 합니다. 기계적으로 삶을 접하고 삶에 무관심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 모르는 선택을 피하고 수동적으로 변해가는 퇴행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더군요. 저는 퇴행의 길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니다. 전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짐해봅니다. “각성을 하고 언제 갈림길에서 서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알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가 내리며, 그리고 결정을 했다면 목소리를 내고 “침묵이라는 사치”에 취하지 말 것, ‘퇴행’이 아니라 ‘전진’, 그리고 ‘선’을 향해 가는 길로 접어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말합니다.”(현문수 2014)

꼭 이런 고백이 필요했을까? 어떤 일에 종사하던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슬펐다. 분노했고 좌절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키비스트의 눈길로 보았고 아키비스트로서 슬퍼했다. 아키비스트에게, 기록물관리와는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심정을 고백하는 이 언어적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것은 기록과 사회적 사건을 연결해 기록공간을 확보

12) “연구의 고민을 나누며 현장의 고단함을 토로하고 기록인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장(場)으로서 자리하길 바랍니다.”(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4b)

한 후 그 공간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명백히 기록물에 대한 관리기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사건을 접한 기록전문직 종사자가 기록의 렌즈로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말하는 기록서사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심경고백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아키비스트라는 사회적 존재가 내는 목소리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된 인간적 사실이다. 일기에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백하는 아키비스트는 장소를 옮겨 카르마라는 기록전문가 공론장에서 진술했다. 양심의 발현인 고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의 기록학적 맥락이 중요하다. 빗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풍요롭게 하듯이, 고백하는 목소리가 쌓이면 기록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전문적 자기성찰이 가능성을 두텁게 할 것이다.

필자는 한 기록대학원에서 아카이브를 강의하고 있다. 이 기록대학원의 몇몇 대학원생들은 416참사 아카이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과 같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발달의 표시를 볼 수 있었다. 아키비스트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주권개념과 연결해서 아키비스트를 이해하려는 시도, 아키비스트의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속하는 기록물 수집에서조차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각, 그래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팀에서 협력적 수집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면서 기록관리전문직 종사자 양성과정에 의문을 품는 시도, 심리적 경계선 너머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 소통하며 고뇌하다 심리치료 전문직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심리적 경계선을 재구성하는 시도 등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인수된 기록지식에 의문을 품고 기록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카이브는 도서관 분야와 밀접한 이웃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서는 사서직과 기록관리직의 두 정체성을 섞은 복합정체성을 겸비한 사서를 분석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서-아키비스트>는 두 사람이다. 한 사

람은 주제전문사서인데, 그는 도서관 사서로 출발해서 지금은 기록학 연구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한 사람은 도서관 활동가인데, 아마도 국내에서는 처음일 것도 같은데, 그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물리적 기반(보존공간, 정리기술이 된 기록물,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록정리방법론, 도서관업무에 활용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제전문사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자신을 포함한 사서 4명의 직업경험을 다뤘는데, 흥미롭게도 내러티브 방식으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기 모습을 은유화 하도록 권유했다. ‘미운 아기 오리’는 편지체의 서사를 통해, ‘시지프스’는 소설체 서사를 통해, ‘샘물’은 자전적 에세이체 서사를 통해 체험적 진술을 했다. 이야기 하나 하나가 흥미로웠다. 이것은 전문적인 개별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주제전문사서-연구자는 사서가 왜 ‘노무적’ 성격의 업무에만 종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인수된 지식에서 구성된 지식으로 옮겨가면서 사서직의 의미를 ‘헤르메스적인 삶’으로 이해했다. 헤르메스의 삶은 지식의 중개자로서 헌신하는 삶, 학자로서의 삶에 대한 지향, 조력자로서의 삶의 애환 등이 주요 구성요소이다(이호신 2013).

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민하는 한 도서관 활동가는 도서관의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공성이란 타인, 타인과 자신의 상호관계, 타인을 고려하는 개인들을 전제한다. 이용자 스스로가 다른 이용자들을 존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신뢰는 그들의 자존감에 대한 극한의 존중이다.”(박영숙 2014, 28) 그가 지향하는 것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또렷하게 말한다. 이것은 이용자가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속한다는 점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과정에서 핵심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이고, 도서관 종사자는 걸을 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해서 15년이라는 길고 느리고 일정하지 않은 시간을 겪으며 ‘자유에 대한 바람’을

공공성의 가치로 다시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애초에 이타적 이유로 도서관을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그에게 주목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꼽으라면 인간적 관계를 맺으며 모델링과 모방을 통한 학습관계를 발달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예술가 중에는 기록자 정체성을 예술성의 일환으로 발달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서는 〈예술가-아키비스트〉 두 사람을 분석한다. 제주도에는 기록자임을 의식하며 생활예술을 추구하는 사진가, 큐레이터가 있다. 이들은 고향인 제주도를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떠나 있던 시간에 너무 변해버린 고향에 충격을 받고 생활예술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사라져가는 제주 담벼락, 제주초가를 사진에 담고, 캔버스에 담고, 전시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기록정신은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이다(이영남 2015). 이들은 전문예술인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개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가치, 신념을 받아들여 생활예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일상적 사진을 기록하며 예술의 혼을 넣는 능력은 결국 전문직 종사자의 개별화라는 전문성이 발달했기 때문이라 본다.

〈북큐레이터-아키비스트〉는 기록에 접근하며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간이 기록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안정희 2015, 11) 놀라운 일이다. 과연 현재 기록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물음을 던지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매일 매일 고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에게는 애초부터 인수된 기록 지식은 없었다. 이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삶으로 들어가 왜 쓰는지 그 까닭을 묻고,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고유한 기록물의 관리 방법들이 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안정희 2015, 12) 은유로 말해본다면,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여행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록자 의

식을 가진 채 삶으로 들어가 자서전을 쓰는 사람, 지역을 기록하는 사람,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들, 역사와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 기록이란 본디 공공성을 지닌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북큐레이터에 어울리게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야기책(소설 등)이 많은 것 같다. 그가 북큐레이터로서 책을 소개하는 과정은 인간의 인간적 사실을 이야기로 풀어쓴 것을 소개하는 과정이다. 그는 인류의 방대한 이야기를 소유한 사람이고 요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먹여주는 사람이다. 그에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화유전자(Cultural DNA) 공유작업이다. 좋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은 인류의 보편적인 좋은 이야기를 누군가의 혈관에 수혈해주는 것에 가깝다. 이것은 전문가 이전에 인류가 성장해온 방식이고 전문성 발달의 표시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그는 겸손하게 ‘보통 사람들의 생활 아카이브 구축’으로 자신의 작업을 이해하지만 꼭 그렇게 좁힐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가 제시한 ‘호모아키비스트’가 갖는 함의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키비스트는 인간의 기원이나 본성을 이해할 때 기록의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울산 반구대의 암각화,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 등의 예술성-기록성에서 인간의 기원과 본성을 찾을 수 있다. 인류는 도구를 제작하면서 창조력을 보여주었다. 도구는 도구의 기능을 뛰어넘었다. 인간은 도구를 제작할 때 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형식을 중시했다. 인간은 미학적, 상징적 동기를 가지고 도구를 제작하면서 의도적이고 자각적인 예술활동을 했다. 정신적, 상징적 이미지를 만드는 미학적 능력은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켰다. 눈에 보이는 풍경에 구속되지 않은 채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결국 인간의 생명력은 예술적 충동에 기원을 둘 수 있게 되었다(Lorblanchet 2006). 아이들이 도구를 가지고 놀면서 보여주는 인간의 본원적 생명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호모아키비스트나 생활예술 종사자들에게 시사를 받을 수 있는 점은, 인간의 기원과 본성을 이야기할 때 기록성-예술성이 중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상의 전문성 발달 표시를 종합한다면, 이타적 관계로 입장이 재편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관점을 가진 아키비스트에게 전문성이란 얼마나 이타적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가 진화해온 장구한 세월과 닿는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발전전략이다. 현재 기록학은 실무지식이나 실용학문으로 경도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기록의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하다보니 예술적 측면인 미학적 관계를 상실했다. 이것은 상당부분 기록학이 시장기제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록의 본성을 본질적 요소로 다시 수용해야 한다. 기록학은 프랙티셔너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복무해야 한다. 새는 좌우의 두 날개로 난다. 한쪽 날개로만 나는 새는 없다. 아직 날지 못한 새는 창공의 자유를 만끽할 수 없다. 전문성 발달은 어린 새가 날개짓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전문직 종사자는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자유는 이 글에서만 하는 특별한 주장은 아니다. “자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시도이다.”¹³⁾ 전문성은 자유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와 연결되어야 한다. 객관성과 주관성의 의미 없는 대립을 버리고 ‘양관의 침대’에서 ‘아키비스트 주체성’이라는 기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록공간은 자유가 확대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매 순간의 선택이 자유와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사유하면서.

13) 알베르 카뮈의 이 말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21014b) 『KARMA』(2호), 발간사에 인용되어 있다.

5. 에필로그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영장류로 분류된다. 이 분류표에는 인간(호모 사피엔스), 보노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가 있다. 이들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와 각각 그 독특한 존재로 진화했다. 과학자들은 이 차이가 궁금했다. 어떤 차이가 작용해서 다른 영장류와 달리 인간은 인간이 되었을까?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DNA 차이에 주목했다. 문제는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9% 이상이 같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연구가 진행될수록 차이는 더 좁혀져가고 있다. 어떤 세포가 생겼을 때 이 사실만으로는 인간과 침팬지를 구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1%의 차이에 어떤 진화의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결국 결론은 다른 곳에서 났다. 결정적인 것은 차이가 아니라 순서였다. 생물학자들은 유전자 그 자체의 차이보다는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순서와 리듬에서 답을 찾았다.

“발생 초기단계에는 인간과 침팬지의 배아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성장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뒤로는 차이가 점점 분명해진다. 예를 들면, 뇌와 머리뼈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인간에게는 뇌가 우선이고 머리뼈는 그 다음이다. 뇌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갓난아기를 보면 뇌가 계속 자라고 있고 머리 상단의 머리뼈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침팬지의 우선 순위는 정반대이다. 머리뼈가 먼저고 뇌는 나중이다. 침팬지는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는 것 같다. ‘자, 공간이 주어졌어. 알겠어. 이 공간에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뇌를 채워라.’ 그러나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뇌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Murch 2001, 문원립 역 2010, 24-25)

생물학자들의 결론은 DNA에 저장된 정보가 활성화되는 순서와 유기

체가 성장하면서 각각의 정보가 활성화될 때 그 속도를 제어하는 뭔가 다른 것(아직 논의 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진화의 역사가 흥미롭다. 아카이브가 하나의 유기체로 성장하면서 자기 특유의 모습을 갖춰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늘 있었는데, 진화사를 접하면서 오히려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아카이브이다. 두개골(기록물이라는 사물이 주인공이자 주인인 아카이브)이 아니라 뇌(아키비스트라는 존재,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적 사실의 탐구, 윤리적 관점)가 먼저 자라야 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불리한 상황이긴 하다. 시장기제가 장악한 곳에서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속도전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성과가 금방 나오지 않는 사업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아카이브이다. 속도가 더딘 것은 두개골을 아직 고정시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뇌가 더 자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인간생명의 본능이라고 하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전자기록물 시대가 되었다. 전자기록물의 핵심 이슈는 장기지속 관리체계이다. 아카이브가 하나의 유기체로 내부로부터 성장하면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가는 방법도 여기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들어, 기록조직론의 더딘 시간흐름은 아카이브가 하나의 고유한 유기체로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 말해본다.

이제 논의를 마무리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기록이 나오는 출처로서 인간, 그리고 기록이 최종 향하는 곳으로서 인간이란 무엇일 수 있을까? 기록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양자는 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양자가 관계를 맺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이런 물음을 던지고 인식론적으로 접근해보았다. 인식론적 접근은 <1+1=2가 맞다>라고 누군

가 주장할 때, 당신은 지금 맞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맞다가 어떤 의미인가, 그 맞다는 어떤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탐구하는 방식이다. 이런 전통은 소크라테스 이래로 서양철학의 가장 굵직한 줄거리이다. 예를 들어, 기록학은 출처를 주요 원리로 삼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을 것 같다. 아키비스트여, 당신은 출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출처가 무슨 뜻인가, 어떤 근거로 구성된 출처를 말하는가? 당신이 말하는 출처는 정당한가? 이런 물음은 어떤 출처가 필요한가 이전에 출처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묻는 인식론적 접근이다. 윤리적 관점을 사유하는 기록인식론은 기록의 기원과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정의의 여신은 디케(dike)였다. 디케는 올바름, 공정함으로 번역된다. 이처럼 정의는 윤리적 함축을 갖는다.¹⁴⁾ 그리고 뮤즈는 예술의 여신이었다. 전문성 발달의 지표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윤리적 관점에서 아카이브를 바라볼 때, 그리고 이타적 기호로 아카이브를 상징화할 때, 인간적 사실을 탐구하고 기록할 때, 이 길을 인도하고 지켜줄 여신은 누구일까? 디케와 뮤즈이지 않을까. 테리 쿡이 말한 아카이브의 영혼이 디케와 뮤즈이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곽건홍. 2014.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서울: 선인.
 김상봉. 1998. 『자기의식과 존재사유: 칸트철학과 근대적 주체성의 존재론』. 파주: 한길사.
 김상봉. 1999. 『호모 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파주: 한길사.
 김상봉. 2015. 『철학의 현정: 518을 생각함』. 서울: 길.

14) 라틴어로는 유스티티아(justitia)에 해당한다. 오늘날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이상의 논의는 이정우(2004)의 저서 『개념-뿌리들』(2권), 6장을 참조하였다.

- 김영진. 2005.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광주: 한울.
- 김영진. 2014. 칼 폴라니의 경제인류학 방법에 대한 고찰: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국제정치논총』, 44(4), 47-68.
- 노영주. 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경미. 2010. 『마몬의 시대, 생명의 논리』. 서울: 녹색평론사.
- 박영숙. 2014.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진 않겠습니다: 도서관, 시민이 탄생하는 제3의 공간』. 서울: 알마.
- 설문원. 2014.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42, 287-326.
- 안정희. 2015.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서울: 이야기나무.
- 塩野谷祐一. 2002. 『經濟と倫理: 福祉國家の哲學』.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박영일 역. 2008. 『경제와 윤리: 복지국가의 철학』. 서울: 필맥).
- 원용찬. 2012. 『칼 폴라니, 험릿을 읽다』. 서울: 당대.
- 윤은하. 2016.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에 대한 재고찰: 클리포드 기어즈의 인류학적 방법론을 통해. 『기록학연구』, 47, 131-159.
- 이상민. 1999. ICA 아키비스트 윤리규약. 『기록보존』, 12.
- 이상민. 2003. 아키비스트 윤리 규약과 논평. 『기록학연구』, 7, 199-210.
- 이상민. 2008.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기록학연구』, 18, 281-315.
- 이영남. 2013. 상징아카이빙: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8, 125-187.
- 이영남. 2015. 기록공간. 『기록과 정보문화연구』, 창간호. 7-44.
- 이정우. 2004. 『개념-뿌리들』(2권). 서울: 철학아카데미.
- 이정우. 2011. 『객관적 선형철학 시론』. 서울: 그린비.
- 이호신. 2003. 『주제전문사서 이야기』. 서울: 조은글터.
- 전진한. 2016. 『대통령 기록전쟁』. 대구: 한티재.
- 정태인, 이수연. 2013. 『협동의 경제학: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 서울: 레디앙.
- 조민지. 2011.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27, 89-118.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재천, 주일우(편). 2007.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 서울: 이음.
- 최정규. 2009. 『이타적 인간의 출현: 게임이론으로 푸는 인간 본성 진화의 수수께끼』. 서울: 뿌리와이파리.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4a. 『KARMA』 창간호.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4b. 『KARMA』 2호.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4c. 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
- 현문수. 2014. 고백과 각성의 변주곡. 한국기록전문가협회(편) 『KARMA』. 창간호.
- Agamben, Giorgio. 1998. *Quel che resta di Auschwitz: l'archivio e il testimone*. Torino: Bollati Boringhieri. (정문영 역. 2012.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서울: 새물결).
- Axelrod, R. and Hamilton, W.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 Basic Books. (이경식 역. 2009. 『협력의 진화: 이기적 개인의 틈포갯 전략』. 서울: 시스테마).
- Clastres, Pierre. 1974. *La societe contre l'etat*. Paris : Éd. de Minuit. (홍성흡 역. 2015.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정치인류학 논고』. 서울: 이학사).
- Clastres, Pierre. 1980. *Recherches d'anthropologie politique*. Paris: Seuil. (변지현, 이종영 역. 2002. 『폭력의 고고학: 정치 인류학 연구』. 서울: 울력).
- Clément, E. 1994. *Pratique de la Philosophie de A à Z*. Paris : Hatier. (이우정 역. 1996. 『철학사전』. 서울: 동녘).
- Connelly, Michael and Clandinin, Jean. 1988. *Teachers as curriculum planners: narratives of experien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강형석 역. 2013. 『교사와 교육과정: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파주: 양서원).
- Creswell, John.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조홍식 외 역.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Dülmen, Richard van. 2001. *Historische anthropologie : entwicklung, probleme, aufgaben*. Köln: Böhlau. (최용찬 역. 2001. 『역사인류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 Foucault, Michel. 1966. *Mots et les choses : une archeologie des sciences humaines*. Paris: Gallimard. (이규현 역. 2012.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 Foucault, Michel. 1972. *Folie et déraison.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Paris: Gallimard. (이규형 역. 2003. 『광기의 역사』. 서울:나남출판).
- Hann, C. and Hart, K. 2011. *Economic anthropology : history, ethnography, critique*. Cambridge: Polity. (홍기빈 역. 2016. 『경제인류학 특강』. 서울: 삼천리).
- Jimerson, Randall. 2009.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2016.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Levi, Primo. 1947. *Se questo e un uomo*. Torino: De Silva. (이현경 역. 2007. 『이것이 인간인가: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의 기록』. 파주: 돌베개).

- Lewellen, Ted. 1992. *Political anthropology; an introduction*. Santa Barbara, CA: Praeger. (한경구 외 역. 1995. 『정치인류학』. 서울: 일조각).
- Lorblanchet, Michel. 2006. *Origines de l'art*. Paris: Éd. le Pommier. (김성희 역. 2014. 『예술의 기원』. 서울: 알마).
- Murch, Walter. In the blink of an eye: a perspective on film editing. Los Angeles, CA: Silman-James Press. (문원립 역. 2010. 『눈 깜빡할 사이: 영화편집에 대한 연구』. 서울: 비즈앤비스).
- Nowak, M and Highfield, R. 2011. *SuperCooperators : altruism, evolution, and why we need each other to succeed*. New York: Free Press. (히준석 역. 2012. 『초협력자: 세상을 지배하는 다섯 가지 협력의 법칙』. 서울: 사이언스북스).
- Pojman, L. and Fieser, J. 1999. *Ethics: Discovering Right and Wrong*.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박찬구 외 역. 2010. 『윤리학을 읽고 그림의 발견』. 서울: 율력).
- Sen, Amartya Kumar. 1987. *On ethics and economics*. Oxford and New York: Basil Blackwell. (박순성 역. 1999. 『윤리학과 경제학』. 서울: 한올아카데미).
- Singer, Peter. 1995. *How are we to live?: ethics in an age of self-interest*. Amherst, N.Y.: Prometheus Books. (노승영 역. 2014.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이기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실천윤리』. 서울: 시대의 창).
- Singer, Peter. 2011. *Expanding circle: ethics, evolution, and moral progres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김성한 역. 2012. 『사회생물학과 윤리』. 고양: 연암서가).
- Skovholt, Thomas.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Burnout Prevention and Self-Care Strategies for Counselors, Therapist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Boston, MA: Allyn and Bacon. (유성경 외 역. 2003. 『건강한 상담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서울: 학지사).
- Supiot, Alain. 2005. *Homo juridicus: essai sur le fonction anthropologique du droit*. Paris: Seuil. (박제상 역. 2015. 『법률적 인간의 출현』. 파주: 글항아리).
- Vergez, André and Huisman, Denis. 1980. Nouveau "Cours de philo". Paris : F. Nathan. (이정우 역. 1988. 『새로운 철학강의』. 서울: 인간사랑).
- Walker, Alice. 1983. *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womanist prose*. San Diego, CA: Harcourt Brace Jovanovich. (구은숙 역. 2004.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 서울: 이프).
- Wilk, R. and Cliggett, L. 2009. *Economies and cultures: foundations of economic anthropolog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홍성흡. 2010. 『경제 인류학을 생각한다』. 서울: 일조각).
- Zinn, Howard. 2001. *Howard Zinn on history*.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이재원 역. 2009. 『하워드 진, 역사의 힘』. 고양: 예담).